

# 모두 함께 건강한 우리, 나로부터 시작해요.

## - 사회적협동조합 칠갑산생태교육센터-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진경

지구 온난화는 물론이고, 고병원성 전염병, 백여 년 만의 이상 기온 등 우리는 더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 우리는 이제 더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앞으로 더 심해질지 모르는 기후 변화와 생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태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춰야 한다.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칠갑산생태교육센터(대표 김기태, 이하 생태센터)을 만났다. 생태센터는 2019년 충청남도 청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액션 그룹 생태분과로 출발했다. 사회적협동조합원은 13명, 구성원은 환경교육사, 목재 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역량 강화 교육 등 과정 이수를 거쳐 지난해 9월에 정식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환경부 인가를 받고, 2022년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았다.

칠갑산생태교육센터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양에서 생태교육, 환경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단체 활동, 협동조합 등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기본적으로는 각자 했던 일들의 역량들을 결집해 지역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보자 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그런 목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의 환경 교육, 생태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취지는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에서 의제들을 만들어 풀어나가는, 농촌형 환경 교육에 있다.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 중앙에 종속돼있는 경우가 많아 농촌의 문제들, 지역의 문제들이 자체적으로 생기는 문제보다 중앙 중심으로 흘러온 주변 인식들이 너무 커져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의 많은 문제가 중앙집권의 문제의식인 경우가 많아서 농촌문제가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이제 지역 중심의, 지역이 주체적으로 지역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해야 지역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접근 취지는 그렇지만, 그것이 생각같이 쉽지는 않은 점도 생태센터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과 함께 먼저 문제를 공감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지역민 또는 지역에 자라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주체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개념들에서 출발해야 지역의 문제가 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냥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생태적 삶’, ‘생태적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는 것이 생태교육센터의 생각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두기 위해 지역의 환경 교육, 생태 인문학으로 내세운 내용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자산, 예를 들어 지역의 자연, 우리 문화 같은 지역 문화, 이런 것들을 전부 자본, 자원으로 활용해 이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문제와 함께해보자, 그런 사랑방 역할을 해보자는 생각에서 만든 것이 작은 도서관이다. 그 공간에서 조합원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원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산도서관, 작은도서관 연계 문화프로그램 진행 모습

작은 도서관 건립 이후 거의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기존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큰 무엇보다 지역에 흠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생태나 환경이나 이런 문제들은 인식 전환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나로부터, 내 지역으로부터 인식 전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을원예사 양성과정 운영

생태센터에서 지금 하는 일은 청양군에서 지원받아서 마을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 퍼머컬처(Permaculture, '지속 가능한'이라는 뜻의 'permanent'와 '농업'인 'agriculture'의 합성어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뜻함) 원리를 이용하는 정원 교육을 했고, 학교 환경 교육 동아리 지원 사업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 중이다. 학교 텃밭 관련한 원리를 이용해 나, 내 집, 우리 마을로부터 시작하자는 인식에서 마을 원예사 양성 과정 같은 것은 해본 경험이 있다.



특히 청양 같은 경우는 요즘 귀농, 귀촌 인구가 많아서 그분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 마을 원예, 텃밭 정원, 이런 개념으로 내 주변을 먼저 가꾸고, 그것을 통해서 생태나 환경에 대한 인식까지 전환하는, 그렇게 출발하는 식으로 사업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마을 학교도 결국은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

지역 내에서 생태 환경 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반가워하고 반응이 좋다고 한다. 청양군 환경보호과나 관련 부서에서의 도움도 적극적인 편이다. 기초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고 있고, 청양교육청도 교육청 환경 교육 사업의 하나로 학교 환경 교육이나 마을 학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 결국은 앞으로 환경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초, 중, 고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다 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청소년 환경 교육 - 청신여자중학교 텃밭 교육

사회적 기업을 직접 해보니 서류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에 어려움이 많다. 실제로 그 부분을 위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은

본 사업보다는 그것들을 갖추기 위한 시간이 오히려 더 지치게 되는 일들이 다 반사인 경우를 많이 보고, 겪게 된다. 그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방법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대부분 전문가라기보다는 대부분 시장 경제에서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업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것들을 미션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 단체들인데 형식에 맞추고 효율성 따지고 그런 에너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그런 부분이 가장 와닿는 문제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됐든, 지역 사회 공헌이 됐든 어쨌든 그런 사회적 미션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맞게, 일부는 간소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지역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함께하면서 보람을 가지고 나름대로 존재감을 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참여하는 것이지, 경제적인 것으로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는 데 일정 정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살자 하는 마음, 그런 개념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지, 여기에서 돈을 벌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죠.” 김 대표는 사회적 기업들을 대표해 사회적기업들의 비전을 얘기하며 웃음을 지었다.

일하면서 가장 보람이 될 때가 언제인지 묻는 물음에 김 대표는 자기만족을 해야 한다며 웃었다. “내가 생각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 지역에서 이런 역할을 누군가는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몇몇 사람들과 같이 공감하고 하는, 그런 거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안에서 효용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김 대표는 청양 지역의 특성상 규모가 작고 고령화된 지역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람이 사는 곳이 어디나 다 같다는 것은,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려면 영양소나 모든 것들이 다 골고루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회도 결국 같다는 것이다. 이 사회가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

회적경제 조직들이 사회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면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노령 인구들이 많아서 그렇고, 뭐가 그렇고. 그에 맞는 수요나 요구 사항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회가 더 건강해지려면 결핍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찾은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같이 출발해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자꾸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거죠.”



생태 감수성을 키우는 <놀자마을학교> 운영 모습

생태센터가 현재 계획하는 것은 청양군이 기초 환경 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농촌형 환경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야로의 새로운 발걸음에 기대가 된다.

이 시대는 기후 변화의 시대다. 그 본질은 우리 인간의 ‘인식의 위기’에 있



다. 우리가 본질적인 위기에 대해 온전히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균형과 조화가 깨져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기후,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면 이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이러한 조직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어린 응원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한다.